

1

01. 시스템 디자인 & 확장

: How CC(Cloud Computing) makes IT bussiness better?

시스템 디자인 : Simple SNS

- 기존 방식의 시스템 디자인 및 확장 과정을 공부 →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을 학습

목표? : 간단한 SNS 시스템을 디자인

- 참고 : "시스템 디자인"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듈, 인터페이스, 데이터 등을 정의하는 과정을 의미.
- 디자인 과정
 1. 사용자에게 SN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정의
 2. SNS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모듈을 정의
 3. 전체 시스템 디자인
 4. 필요시, 시스템을 재구성

1) Defining Functions (기능 정의)

- 목표 :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간단한 SNS 구현 (직원 수 : 100명 가량)
 - 서비스 품질(QoS)이 우수해야 함
 - "우수한 품질"은 추상적 개념이며, 낮은 응답시간, 높은 처리용량/속도, 낮은 오류율 등 측정 가능한 기준으로 정의해야 함
- SNS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능?
 - 가입/등록

- 신규 사용자 가입 시 ID/PW 생성
- 친구 요청/수락
 - 친구 추가 요청 보내기
 - 친구 추가 요청을 승낙/거절
- 글쓰기
 - 글쓰기
 - 내 친구로 등록된 사용자가 게시한 글 읽기

2) Identifying the modules we need (모듈)

- SN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버측 모듈/컴포넌트**는?



- **웹 서버 (Web Server) 또는 WWW + AWS**
 - 서비스 접속 위한 **웹 페이지** 제공
 - 사용자 **생성/관리**
 - 친구관계 **관리** (요청, 수락, 거절 등)
 - 글 쓰기/읽기
- **데이터베이스 (DB)**
 - 사용자 **계정 정보** 저장
 - **친구관계** 저장
 - 사용자가 작성한 **글**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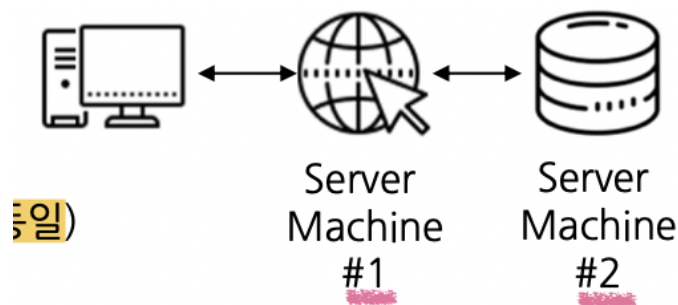
3) Designing the system (시스템 디자인)

디자인 #1

- 웹 서버(WWW), 데이터베이스(DB)를 한 대의 서버 컴퓨터에 설치
- 서버 사양
 - Single core, 2.0Ghz processor (CPU)
 - 1G RAM (memory)
 - 256G SATA (HDD)
- If, 직원 수가 1000명으로 늘어나 응답시간이 증가하고 오류가 발생? → 시스템 분할!
 - 가입자 수보다 중요한 것: 동시접속자 수 고료 (실시간 리소스 관리 - Queue로 모델링, 동접자 수 많아지면 대기 시간이 중요함)

디자인 #2 : 시스템 분할 (partitioning the system)

- 한 대의 서버를 두 대로 분리 (기능적 분할)



- 서버#1에는 WWW(웹서버)
 - 서버#2에는 DB
- ⇒ 기능/역할에 따른 분할 (각각의 서버 사양은 이전과 동일)
- 디자인 #1에 비해 서비스 품질이 개선된 이유? (응답시간 감소, 오류 감소)
 - 시스템 부하 감소
 - 기존에는 한 대의 컴퓨터가 WWW와 DB 업무 처리를 모두 담당했으나, 지금은 각각의 서비스가 담당하는 일이 줄어들

- If, 사용자 수가 더 증가하여 다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면?
 - Scale Up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

4) Revising the system (시스템 개선)

Scaling 방법

1. **Vertical Scaling** : 수직적 확장 (scale-up/down)
 - 기존의 시스템 장비/부품을 고사양으로 대체
2. **Horizontal Scaling** : 수평적 확장 (scale-out/in)
 - 더 많은 장비를 추가하여 성능 확장 (이론적 Good)

VS (수직적 확장)	HS (수평적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S 수행 중 서비스 중단 가능 - VS는 무제한 수행 불가 (장비, 기술적 한계로 제한됨) - 부품 교체 시, 기존 부품 비용 낭비를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으로 시스템 성능 확장 가능 - 병렬 처리 가능 - 부하 분산 처리 가능 - 시스템 확장 제한 X - 성능 확장/감소 작업 쉬움 - 범용적 장비를 통해 성능 확장이 가능, 감소시에는 회수한 장비 다른 목적으로 사용 가능 → 비용 낭비 X

디자인 #3 : Vertical Sca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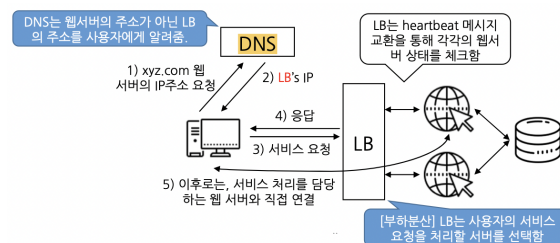
- 각 부품 성능 개선
 - Single core, 2.0Ghz CPU ⇒ **Dual core, 3Ghz**
 - 1G RAM (memory) ⇒ **4G RAM**
 - 256G SATA (HDD) ⇒ **512 M.2 SSD**
- 디자인 #2에 비해 서비스 품질 개선 (응답시간 감소, 오류 감소)
 - 서버 부품이 고성능으로 교체, 시간당 연산량/처리량 증가
- VS에는 한계가 있음 ⇒ Scale Out 방식 사용!

디자인 #4 : 웹서버 늘리기 (Doubling WWW)

- 웹 서비스를 위한 서버 1대 더 추가
 - 각 웹 서버가 처리하는 부하 반으로 줄이기 (서버 부하 분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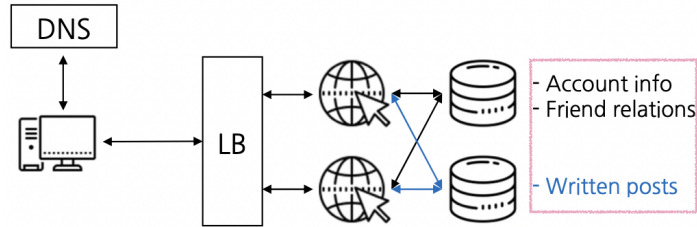
- 부하 분산 방법?
 - 누가 부하 분산?
 - 서버 2대면, 사용자는 어느 웹 서버 접속?
-
- **LB (Load balancer, 부하 분산자)**를 도입
 - LB는 정해진 정책에 따라 부하를 분산시킴
 - Ex) RR (round-robin) 기법
 -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버에 요청 전달



-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 서비스 성능 다시 저하
- 성능 분석 결과, DB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

디자인 #5 : DB 늘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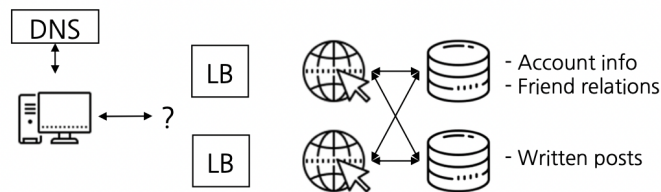
- DB를 1대 더 추가하고, 데이터 타입에 따라 역할 분리
 - DB#1 : 사용자 계정, 친구관계 정보 저장/관리
 - DB#2 : 사용자 게시 글 관리



- If, LB 다운/비정상 종료
 - HA 수행! (high availability)

디자인 #5 : LB 늘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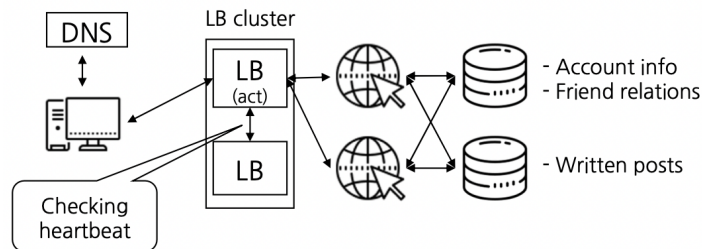
- LB 1대 더 추가하고,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하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안정성 높이기



- 사용자는 어느 LB에 접근? (이중화)
 - HA (High Availability)
- HA (High Availability, 고가용성)
 - 서버,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정보 시스템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상 운영이 가능한 성질
 - 고가용성 = 가용성 높음 =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음 =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음
 - 여분의(redundant) 장비를 추가로 사용해 HA 달성 가능
 - "대기" 하는 장비를 두고, 장비가 고장나면 즉시대체
- HA 클러스터
 - 서비스 제공하는 다수의 장비로 구성된 그룹,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downtime(중단시간)을 최소화하고 uptime(가동시간)을 최대화 함

- 장애 극복(failover) : 하나의 장비가 고장나면, 클러스터 내 다른 장비가 서비스 처리
- 모드
 - **active-active** : 두 대의 장비가 모두 활성화되어 서비스를 제공, 한 대의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장비는 사용 x
 - **active-standby** : 한 대는 active, 다른 한 대는 standby 모드로 설정하고 active 장비만 서비스를 제공함. active가 고장나면 즉시 standby가 active로 전환해 서비스 제공
- 참고 : 클러스터는 고정된 가상 IP (virtual IP)를 대표 IP로 사용, 대표 IP는 active 장비와 논리적으로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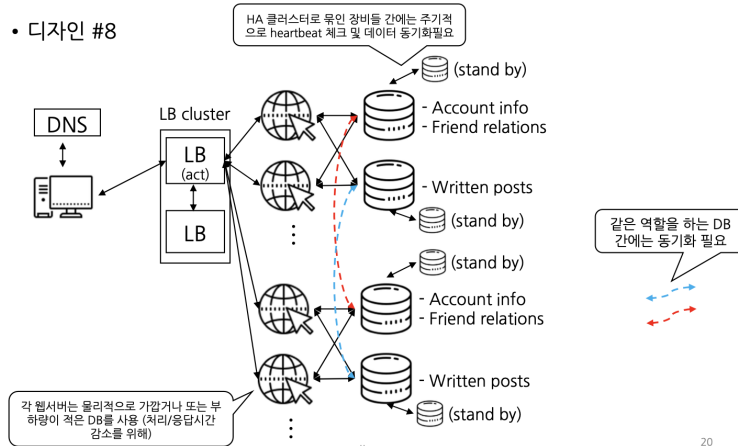
• + HA 예시



- 2대의 LB로 클러스터를 구성, active-standby 모드로 설정
 - Active 상태의 LB에 장애 발생시, standby 상태의 LB가 active로 전환
-
- 웹서버에 접근하는 사용자 증가로 인해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거나, 웹서버 두 대가 동시에 고장나면?
 - 디자인 #6 : 웹서버 확장 (Horizontal Scaling + HA clustering)
 - DB로 인한 성능 병목 현상이 발생 or DB 장애 발생?
 - 디자인 #7 : DB 서버 확장 (Horizontal scaling + HA clustering)
 - 같은 역할 DB가 다수 → 동기화 필요
 - 디자인 #8 : DB 동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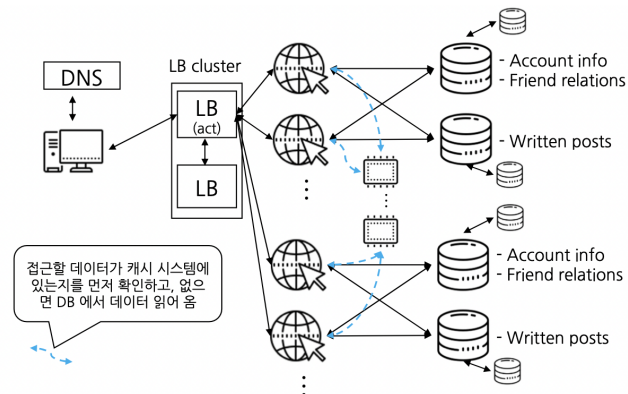
디자인 #8 : DB 동기화

• 디자인 #8



디자인 #9 : 캐시 시스템 도입

- 응답 시간을 줄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 빈번히 access되는 데이터를 캐시에 저장
- **Cache**



- 접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캐시 시스템 사용
- 빈번히 access 되는 데이터를 사전에 캐시 시스템에 저장
- 일반적으로 DB에서 읽어오는 것보다 응답시간 빠름

그 외

- **갑자기 90% 사용자 탈퇴 시?**
 - over-provisioning (과한 구축 ㄱ)
 - 대부분 시스템 자원 사용 X → 비용 낭비 (서버 구입비, 서버 운영비 낭비)
 - **HS (horizontal scaling) 방식으로 성능 확장한 경우, 일부 장비를 제거해 다른 시스템 성능 확장에 사용 가능**
- **갑자기 사용자 100배 폭증?**
 - 서버 성능을 줄여놓은 상태이므로 **서비스 품질 크게 저하됨**
 - HS 방식으로 시스템 성능 다시 확장
- **HS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 서비스에 장애 없이 성능을 높이거나 줄일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서버 재배포, OS/SW 설치 등에 시간+노력이 필요함.**
- VS/HS 방식으로 성능 확장할 경우, **새로운 부품/장비를 구매 ⇒ 많은 비용 + 시간 + 노력이 필요**
 - 부품 구매 ⇒ 초기 비용이 큼
 - 특수 목적으로 제작된 서버 구매 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함
 - 기다리는 동안 서비스 품질 저하 막을 수 없음
- VS/HS 방식으로 시스템 확장되는 경우, **운영비 증가**
 - 서버실 운영비 (전기, 냉방), 서버실 관리자 인건비 등
- 기존의 성능 확장 방식 ⇒ 비용 + 시간 필요
- 사용자 트래픽이 큰 폭으로 변동할 경우, 신속한 대응 불가
 - 대부분의 시스템 자원이 낭비되거나 (사용자 급격히 감소)

- 서비스 품질이 저하됨 (사용자 급격히 증가)

결론 :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동적으로 신속하게 시스템 성능 조절 가능